

술어명사구의 통사적 실현 양상*

박 동 호
(경희대학교)

Pak, Dong-Ho. (2004). Aspects of syntactic realization of predicative noun phrases. *Language Research* 40(3), 597-617.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analyze diverse aspects in the syntactic realization of predicative noun phrases. In this respect, we first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argument forms of verbs and predicative nouns. Secondly, we analysed four arguments whose forms are respectively 'ui', 'zero', 'e daehan' and 'e uihan' in relation to their functions given by a predicative noun. Thirdly, we analysed the restrictions on the realization of arguments in predicative noun phrases. More specifically, we examined two types of restrictions: restrictions due to the lexical properties of predicative nouns and restrictions due to the argument form of predicative nouns. Fourthly, we examined the omission of arguments occurring in predicative noun phrases and found all the arguments are not necessarily realized in predicative noun phrases: only when an argument proximate to the predicative noun is realized can this predicative noun phrase be grammatical. We also examined a noun phrase previously categorized as predicative which seems to be grammatical even though its proximate argument is not realized and determined it to be a new type of situational noun phrase. In other words, we showed that in order to explain diverse types of argument omission occurring in predicative noun phrases, we have to divide predicative nouns into two types: one used only as a predicative noun and the other used as a predicative and situational noun.

Key words: predicative noun, predicative noun phrase, syntactic realization, argument, lexical properties, omission of argument, proximate argument, situational noun phrase

1. 머리말

동사구문 (1)에 대해서 명사구문 (2)가 대응한다.

* 이 연구는 2003년도 경희대학교(KHU-2003-1136) 지원에 의한 결과임. 이 논문을 읽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의 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의견이 이 논문의 수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 (1) 가. 한국은 베트남과 교류하고 있다.
나. 그 회사는 유럽으로 진출했다.

- (2) 가. 한국은 베트남과 교류를 하고 있다.
나. 그 회사는 유럽으로 진출을 했다.

술어(predicate)가 (1)에서는 ‘교류하다’, ‘진출하다’와 같은 동사로, (2)에서는 ‘교류’, ‘진출’과 같은 명사로 실현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사를 술어명사(術語名詞; predicative noun)라고 한다.¹⁾

동사와 마찬가지로 이 술어명사도 통사적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구성은 다음 (3)과 같은 술어명사구다.

(3) 철수의 국어 공부

(3)은 술어명사 ‘공부’를 핵으로 하는 술어명사구인데 ‘공부’의 주어 기능을 하는 논항인 ‘철수’와 목적어 기능을 하는 논항인 ‘국어’가 ‘공부’를 중심으로 술어명사구 내에 통합되어 실현되었다.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실현될 때, 그 실현 양상은 술어명사의 어휘·통사적 속성에 따라 다음 (4)에서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 (4) 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파병 약속
나. 정부의 난민들에 대한 입국 허가
다.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라. 철수의 영희의 행위에 대한 분노

(4가)의 ‘약속’, (4나)의 ‘허가’는 논항을 세 개 취하는 술어명사인데 그 주어 논항은 ‘의’ 형태, 목적어 논항은 ‘영(零; zero)²⁾’ 형태, 부사어 논항은 ‘에 대한’의 형태로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되었다. (4다)의 ‘학습’, (4라)의 ‘분노’는 논항을 두 개 취하는 술어명사인데 그 주어 논항은 모두 ‘의’ 형태로 실현되었으나 다른 논항의 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학습’의 경우에는 다른 논항이 ‘영’ 형태로 실현된 반면, ‘분노’의 경우에는 ‘에 대한’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동일한 술어명사라 하더라도 그 술어명사 논항의 통사적 실현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5)의 ‘설명’의 경우를 살펴보자.

1) 술어명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Ahn Hee-Don(1991), Park Kabyong(1992), Kim J.-R.(1993), 홍제성(1992, 1999), 채희락(1996)을 참고.

2) ‘영(零; zero)’은 특별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표(無標)를 뜻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2. 참고.

- (5) 가. {철수의 영희에 대한 문법 설명/영희에 대한 철수의 문법 설명}
 나. {철수의 문법 설명/철수의 문법에 대한 설명/문법에 대한 철수의 설명}
 다. 철수에 의한 {문법의/문법} 설명
 라. 철수의 설명
 마. {문법의/문법} 설명
 바. 설명은 간단, 명료해야 한다.

‘설명’은 원래 세 개의 논항을 취하는 술어명사이며 (5가)에서는 모든 논항이 실현되었다. (5나)와 (5다)에서는 두 개의 논항만이 실현되었다. (5가)와 (5나)는 ‘의’와 ‘에 대한’ 형태 논항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5라)와 (5마)는 두 개의 논항이 생략된 구성이다. 심지어 (5바)에서와 같이 모든 논항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³⁾

이와 같이 술어명사의 논항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실현 방식에는 어떤 규칙성과 제약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술어명사구의 다양한 통사적 실현 양상을 검토·분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우선 2장에서 동사와 술어명사의 논항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통사적 대응 관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술어명사 논항의 대표적 형태인 ‘의’, ‘영(零; zero)’, ‘에 대한’, ‘에 의한’을 술어명사가 논항에 부여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 우리는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제약을 분석할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술어명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른 통사적 실현 제약과 논항의 형태에 따른 위치 이동 제약을 다룰 것이다. 5장은 술어명사 논항의 생략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논항 생략 현상과 관련된 제약 조건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술어명사를 술어명사의 용법만을 갖는 명사와 술어명사와 사태명사의 용법을 모두 갖는 명사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2. 동사와 술어명사 논항의 형태·통사적 대응 관계

한 동사가 고유한 동사구문을 구성하듯이 술어명사도 고유한 술어명사구를 구성하는데 동사와 술어명사가 형태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동사구문과 술어명사구 사이에는 밀접한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다음 (6)과 (7)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3) 술어명사 논항의 생략에 대해서는 5장 참고.

- (6) 가. 한국은 {미국에/미국에 대해} 파병을 약속했다.
 나. 정부는 {난민들에게/난민들에 대해} 입국을 허가했다.
 다. 초등학교들도 {영어를/영어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라. 철수는 {영희의 행위에/영희의 행위에 대해} 분노했다.
- (7) 가. 한국의 {*미국에의/미국에 대한} 파병 약속
 나. 정부의 {*난민들에게의/난민들에 대한} 입국 허가
 다. 초등학교들의 {영어/영어에 대한} 학습
 라. 철수의 {*영희의 행위에의/영희의 행위에 대한} 분노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속하다’, ‘허가하다’, ‘학습하다’, ‘분노하다’는 세 개 또는 두 개의 논항을 갖는 동사인데 이 논항들은 모두 문장 내에 실현되었다. (7)에서는 이 동사들에 대응하는 술어명사 ‘약속’, ‘허가’, ‘학습’, ‘분노’ 역시 세 개 또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며 이 논항들이 술어명사를 중심으로 명사구를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에서와 같이 술어명사의 논항들은 다양한 기능을 부여받아 다양한 형태로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된 논항의 형태는 대응하는 동사구문의 논항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8)과 (9)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8) 가. 철수가 언어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나. 그 회사가 마침내 {미국으로/미국에} 진출했다.
 다. 준호가 영희와 싸웠다.
- (9) 가. 철수의 {?언어학의/언어학} 공부
 나. 그 회사의 {미국으로의/*미국에의4}/미국} 진출
 다. 준호의 {영희와의/*영희} 싸움

(8)과 (9)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의 논항이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실현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차이가 있다. 동사구문 (8나)~(8다)의 필수적 부사어 ‘미국으로’와 ‘영희와’는 (9나)~(9다)에서 각각 ‘미국으로의/미국’과 ‘영희와의’로 실현되었다. 반면 (8가)에서 주어와 목적어 기능을 하는 ‘철수가’와 ‘언어학을’은 (9가)에서는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를 동반하지 않고 ‘철수의’와 ‘언어학의/언어학5’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한편, (8나)~(9나),

4) 이병규(2001, pp. 52-53)는 (9나)의 ‘에의/에게의’ 형태의 논항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으로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물론 다음과 같은 적절한 문맥에서는 이 형태가 가능하다.

(1) {향연에의/시에의} 초대

5) 술어명사의 ‘영’ 형태 논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2. 참고.

(8다)~(9다)는 그 논항의 실현 형태가 잘 대응되지 않는다. (8나)의 ‘미국에’는 (9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에의’로 실현될 수 없으나 역으로 (9나)의 ‘미국 진출’의 ‘미국’에 대응하는 논항의 통사적 실현 양상을 동사구문 (8나)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한편, (9나)와는 달리 (9다)에서는 ‘영희 싸움’이 불가능하다.

이상의 관찰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사와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양상 사이에는 형태·통사적으로 밀접한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만 동사의 모든 형태의 논항이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술어명사의 모든 형태의 논항이 동사의 논항으로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술어명사 논항의 형태

술어명사의 논항들은 술어명사로부터 각기 특정한 기능을 부여받아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이때 부여받는 기능에 따라 ‘의’, ‘영’, ‘와/과 의’, ‘(으)로의’, ‘에 대한’, ‘에 의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지금부터 술어명사 논항의 주요한 형태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자.

3.1. ‘의’ 형태

전술한 바와 같이 ‘의’는 어떤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될 때 부여받는 기능과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형태지만 그 구체적 실현 양상은 사뭇 복잡하다.

논항이 주어의 기능을 부여받으면 다음 (10)에서와 같이 그 논항은 ‘의’ 형태로 실현된다.

(10) 가. 독일의 영국 폭격

- 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
- 다. 민주당의 한나라당과의 싸움
- 라. 관광단의 목적지로의 출발

6) 다음 구성은 (10가)와 구별된다.

(1) 독일 영국 폭격

(1)은 신문, 잡지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사중결문이다. 여기서 ‘독일’은 주격조사가 생략된 채 사용되었고 ‘영국 폭격’은 술어명사 ‘폭격’을 핵으로 한 술어명사구나 전체 연쇄 ‘독일 영국 폭격’은 술어명사구가 아니다. 이는 다음 예문을 통해 잘 드러난다.

(2) 가. 독일의 영국 폭격은 예견되었다.

나. *독일 영국 폭격은 예견되었다.

(2가)의 ‘독일의 영국 폭격’은 술어명사구로 주어 위치에 사용되었다. 반면 ‘독일 영국 폭격’은 술어명사구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논항의 위치에 놓일 수 없다. 따라서 (2나)는 부적절한 문장이다.

(10)의 ‘독일’, ‘남한’, ‘민주당’, ‘관광단’은 각각 술어명사 ‘폭격’, ‘제공’, ‘싸움’, ‘출발’로부터 주어의 기능을 부여받아 ‘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또한 술어명사로부터 목적어 기능을 부여받을 때에도 그 논항은 보통 ‘의’ 형태로 실현되나 이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며 따라서 ‘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음 (11)을 살펴보도록 하자

- (11) 가. 한미 양국의{북핵 문제의 논의/북핵 문제 논의}
 나. 독일의 {?폴란드의 침공/폴란드 침공}
 다. 철수의 {?문법의 설명/문법 설명}

(11)에서 ‘북핵 문제’, ‘폴란드’, ‘문법’은 각각 술어명사 ‘논의’, ‘침공’, ‘설명’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의’ 형태는 어색하며 오히려 ‘의’가 빠진 형태가 보다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음성학적 요인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다. 즉, (11)에서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 기능의 ‘의’ 연쇄가 형성되면 불협음(不協音; cacophony)이 야기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어 ‘의’ 형태 뒤에 오는 목적어 ‘의’ 형태가 생략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근거는 주어 역할을 하는 논항이 생략된 다음 (12)의 구성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 (12) 가. 북핵 문제의 논의
 나. 폴란드의 침공
 다. 문법의 설명

(12)는 (11)과 비교해 볼 때, 주어 역할을 하는 논항인 ‘한미 양국의’, ‘독일의’, ‘철수의’가 생략된 적격한 구성이다.

첫째 설명을 지지해 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11가)와 (11나)~(11다) 사이에 존재하는 적격성의 차이이다. 우리의 직관으로는 (11가)가 (11나)~(11다)보다 자연스러운데 그 이유는 (11가)의 ‘한미 양국의 북핵 문제의 논의’에서 첫째와 둘째 ‘의’ 사이의 거리가 ‘문제’를 수식하는 ‘북핵’의 삽입으로 보다 멀어져 불협음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첫째 설명을 지지해 주는 또 다른 근거에 대한 논의를 위해 (11)에 대응하는 다음 (13)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 (13) 가. 한미 양국에 의한 {북핵 문제의 논의/북핵 문제 논의}
 나. 독일에 의한 {폴란드의 침공/폴란드 침공}
 다. 철수에 의한 {문법의 설명/문법 설명}

(11)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논항의 형태인 ‘의’를 ‘에 의한’으로 대체하면 (13)과

같은 자연스러운 구성이 형성되는데 이는 불협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3)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13)에 대응하는 다음 (14)를 살펴보도록 하자.

- (14) 가. 한미 양국에 의해 북핵 문제가 논의되었다.
- 나. 독일에 의해 폴란드가 침공당했다.
- 다. 철수에 의해 문법이 설명되었다.

(14)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북핵 문제’, ‘폴란드’, ‘문법’은 (13)에서 ‘의’ 형태로 실현되었고 (14)에서 ‘에 의해’ 형태로 실현되었던 ‘한미 양국’, ‘독일’, ‘철수’는 (13)에서 ‘에 의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13)의 구성들은 불협음을 피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다.

둘째 설명은 논항의 결속도 차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기 위해 (11)에 대응하는 다음 (15)를 살펴보도록 하자.

- (15) 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 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 다. 철수가 문법을 설명했다.

술어의 내부논항(內部論項; internal argument)과 외부논항(外部論項; external argument)의 정의에 의하면 (15)의 ‘북핵 문제’, ‘폴란드’, ‘문법’은 내부논항으로 외부논항인 ‘한미 양국’, ‘독일’, ‘철수’보다 술어와 통사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술어와 그 내부논항이 먼저 통합된 다음 (16)의 술어명사구 구성이 (11)보다 먼저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6) 가. 북핵 문제 논의
- 나. 폴란드 침공
- 다. 문법 설명

(16)은 다음 (17)의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 (17) 가. 한미 양국의 논의
- 나. 독일의 침공
- 다. 철수의 설명

(16)의 술어명사와 논항 간의 통사적 결속도가 (17)보다 높다는 것은 다음 (18)의 예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 (18) 가.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논의를 했다.
 나. 독일은 폴란드 침공을 했다.
 다. 철수는 문법 설명을 했다.

(18)에서 (16)의 구성들은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서 보통 ‘의’ 형태로 실현되나 목적어의 경우에는 ‘의’ 형태가 대부분 다소 어색함을 관찰하였다. 우리는 이 어색함이 불협음의 발생이나 논항의 결속도 차이와 관계가 있음을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살펴보았다.⁷⁾

우리는 술어명사의 논항들이 부여받는 기능과 관계없이 보통 ‘의’ 형태로 실현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보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실현 양상에 있어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 (19)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9) 연합군의 베를린으로의 진격

(19)에서 술어명사 ‘진격’의 논항 ‘베를린’은 ‘베를린으로’로 실현되었다. 이 형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우선, ‘베를린’은 동사구문에서 다음 (20)에서와 같이 ‘베를린으로’의 형태로 실현된다.

(20)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했다.

술어명사구 내에 이 논항이 실현될 때에는 (19)에서와 같이 ‘(으)로’ 뒤에 ‘의’가 붙어 ‘(으)로의’ 형태로 실현된다.

‘와의/과의’ 형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다음 (21)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21) 가. 영희의 철수와의 결혼
 나. 영희가 철수와 결혼했다.

7) 한편, 목적어의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영’이 아닌 ‘의’ 형태로 실현되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술어명사구가 있다. 다음 예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 (1) 가.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다.
 나. ?북한의 전기의 부족
 다. 북한의 전기 부족

(1)의 ‘전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나)~(1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될 때 ‘의’ 형태는 어색하고 오히려 ‘의’ 없는 형태가 자연스럽다. 우리는 이 현상을 목적어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즉, ‘전기’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분석하든 서술절의 주어로 분석하든 ‘전기’는 술어명사구를 구성할 때 ‘북한’ 뒤에 놓이게 되며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 어색해진다.

동사구문 (21나)에서 ‘와/과’ 형태로 실현된 논항이 술어명사구 (21가)에서 ‘와의/과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에 반하여, (9)의 구성을 설명할 때 지적인 바와 같이 ‘에/에게’ 형태의 논항은 술어명사구에서 ‘에의/에게의’의 형태로 실현될 수 없다. 다음 (22)와 (23)을 비교해 보자.

- (22) 가. 한국은 미국에 파병을 약속했다.
 나. 정부는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가했다.
 다. 철수는 영희의 행위에 분노했다.

- (23) 가. *한국의 미국에의 파병 약속
 나. *정부의 난민들에게의 입국 허가
 다. *철수의 영희의 행위에의 분노

(22)의 동사구문에서 ‘에/에게’ 형태로 실현된 논항들이 (23)의 술어명사구에서는 ‘에의/에게의’의 형태로 실현되지 못했다.

3.2. ‘영(零; zero)’ 형태

‘의’와 마찬가지로 ‘영’ 형태 역시 술어명사의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통합될 때, 대부분 부여받는 기능과 관계없이 실현된다. 다음 (24)와 (25)의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24) 가. 북한이 전기가 부족하다.
 나. 철수가 국어학을 연구한다.
 다. 한국 팀이 {본선으로/본선에} 진출했다.
 라. 철수가 영희와 싸웠다.

- (25) 가. 북한의 전기 부족
 나. 철수의 국어학 연구
 다. 한국 팀의 본선 진출
 라. *철수의 영희 싸움

(24)에서 ‘전기’, ‘국어학’, ‘본선’, ‘영희’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나 목적어, (으)로나 ‘에’ 형태의 부사어 역할을 할 때에는 (25가)~(25다)에서와 같이 모두 ‘영’ 형태로 실현되었다. 반면, (24라)의 ‘와/과’ 형태 부사어는 (25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 형태로 실현되지 못했다.

3.3. '에 대한' 형태

술어명사구 내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다음 (26)의 '에 대한'에 대해 (27)의 '에 대해'가 대응한다.

- (26) 가. 한미 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
 나. 검찰의 그 사건에 대한 설명
 다. 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

- (27) 가.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나.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다. 철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에 대한'의 통사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되는 논항은 그 역할과 관계없이 보통 '의'나 '영' 형태를 취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에 대한'은 조사 '에'와 '대하다'의 활용형 '대한'이 결합한 것이므로 '에 대한' 연쇄를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에 대해'의 통사적 분석과 맞물려 있다. '에 대해'는 조사 '에'와 '대하다'의 활용형 '대해'가 결합한 것으로 그 연쇄 역시 통사적 분석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를 필수적 부사어, 즉 술어의 논항으로 분석하며⁸⁾ '에 대한' 연쇄 역시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한다.

한편, 다음 (28)~(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6)~(27)에 다른 논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 (28) 가. 한미 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
 나. 검찰의 그 사건에 대한 진상 설명
 다. 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상 보고

- (29) 가.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했다.
 나.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 진상을 설명했다.
 다. 철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실상을 보고했다.

(28)~(29)는 (26)~(27)에 각각 '해결책', '진상', '실상'이 추가되어 만들어진 구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28)의 '에 대한'과 (29)의 '에 대해' 연쇄의 통사적 분석

8) 홍재성(1999, p. 136, 주 6)은 형태·통사적 분석에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대해'를 격조사로 분석하며 '에 대해' 연쇄를 '첨어(添語; adjunct)'가 아닌 '보어(補語; complement)'로 분석한다. 우리는 '에 대해'를 격조사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나 '에 대해' 연쇄를 보어로 분석하는 데에는 홍재성(1999)과 판단을 같이 한다.

이 문제가 된다.

(28)의 ‘에 대한’ 연쇄는 그 위치 이동이 다음 (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적 자유롭다.

- (30) 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결책 논의
 나.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상 설명
 다. 현재 상황에 대한 철수의 실상 보고

물론, ‘에 대한’ 연쇄가 다음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결책’, ‘진상’, ‘실상’과 술어명사 사이로는 이동할 수 없는데 이는 ‘에 대한’ 연쇄와 ‘해결책’, ‘진상’, ‘실상’은 술어명사와의 통사적 결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⁹⁾

- (31) 가. *한미 양국의 해결책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
 나. *검찰의 진상 그 사건에 대한 설명
 다. *철수의 실상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

이상의 관찰에 입각하여 우리는 (28)의 ‘에 대한’ 연쇄를 통사상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이 연쇄는 술어명사 논항으로서의 지위와 술어명사 앞에 오는 논항을 수식하는 관형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30)의 ‘에 대한’ 연쇄는 위치 이동으로 인하여 술어명사 논항으로서의 지위만을 갖는다. 즉, (26)의 ‘에 대한’ 연쇄가 하나의 통사적 지위를 갖는 반면, (28)의 ‘에 대한’ 연쇄는 통사상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한편, (29)의 ‘에 대해’ 연쇄는 뒤에 오는 논항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다음 (32)에서와 같은 위치 이동은 할 수 있으나 (33)에서와 같이 ‘해결책’, ‘진상’, ‘실상’과 동사 사이로는 이동할 수 없다.

- (32) 가.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해결책을 논의했다.
 나. 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설명했다.
 다. 현재 상황에 대해 철수는 실상을 보고했다.

- (33) 가. *한미 양국은 해결책을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나. *검찰은 진상을 그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다. *철수는 실상을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같은 관찰에 입각하여 우리는 (28)의 ‘에 대한’ 연쇄를 통사상 이중적 지위

9) 3.1. 참고.

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는 반면, (29)의 ‘에 대해’ 연쇄는 동사의 논항으로만 분석한다.

3.4. ‘에 의한’ 형태

술어명사구에 나타나는 ‘에 의한’ 연쇄에 대해 동사구문의 ‘에 의해’ 연쇄가 대응한다. 다음 (34)와 (35)의 예들을 살펴보자.

(34) 가. 한미 양국에 의한 {복핵 문제의 논의/복핵 문제 논의}

나. 검찰에 의한 {그 사건의 설명/그 사건 설명}

다. 철수에 의한 {현재 상황의 보고/현재 상황 보고}

(35) 가. 한미 양국에 의해 복핵 문제가 논의되었다.

나. 검찰에 의해 그 사건이 설명되었다.

다. 철수에 의해 현재 상황이 보고되었다.

(35)에서 ‘에 의해’ 형태로 실현된 논항은 (34)의 ‘에 의한’ 형태의 논항에 대응한다. 우리는 ‘에 의한’ 형태가 술어명사구 내에서 ‘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어 기능을 하는 논항 형태인 ‘의’를 대신하여 흔히 사용됨을 지적한 바 있다.¹⁰⁾ 한편, ‘에 의한’ 연쇄의 통사적 분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에 대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 연쇄를 잠정적으로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되는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한다.¹¹⁾

우리는 지금까지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되는 대표적 논항 형태인 ‘의’, ‘영’, ‘에 대한’, ‘에 의한’을 술어명사로부터 논항이 부여받는 기능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리는 ‘의’나 ‘영’ 형태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어명사로부터 부여받는 기능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임을 지적했다. ‘의’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부여받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 사이에는 실현 양상에 있어 차이가 있음도 밝혔다. 전자의 경우에는 논항 뒤에 단순히 ‘의’가 붙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격조사와 결합한 논항 뒤에 다시 ‘의’가 붙는다. 목적어의 기능을 부여받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의’가 없는 형태가 더 자연스러움을 지적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근거를 음성학적 요인과 논항 결속도의 차이에서 찾아보았다. ‘에 대한’ 연쇄를 술어명사 논항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를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는 ‘에 대한’ 연쇄가 술어명사 논항으로서의 지위와 술어명사 앞에 오는 논항을 수식하는 관형어로서의 지위라는 통사상 이중적 지위를 가짐을 지적했다. ‘에 의한’에 대해서는 이 형태가

1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1. 참고.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3.3. 참고.

술어명사구 내에 ‘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어 논항 형태인 ‘의’를 대체할 때 흔히 사용됨을 지적했다. ‘에 의한’ 연쇄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에 대한’과 마찬가지로 이 연쇄를 잠정적으로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하였다.

4.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제약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술어명사의 모든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에는 술어명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른 실현 제약과 논항의 형태에 따른 위치 이동 제약이 존재하는데 지금부터 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4.1. 어휘적 속성에 따른 실현 제약

원칙적으로 술어명사의 모든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 (36)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36) 가. 영주의 주인과의 물건 값 흥정
 나. 준호의 민우와의 자리 바꿈
 다. 한국의 미국과의 북핵 문제 논의
 라. 철수의 영희와의 문법 토론

(36)에서 우리는 술어명사 ‘흥정’, ‘바꿈’, ‘논의’, ‘토론’의 모든 논항들이 술어명사구 내에 빠짐없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설명’, ‘충고’, ‘허락’은 원래 세 개의 논항을 갖는 술어명사이나 다음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되지는 못한다.

- (37) 가. {??영희에 대한 철수의 문법 설명/
 *철수에 의한 영희에 대한 문법 설명}
 나. {??철수에 대한 영희의 이혼 요구/
 *영희에 의한 철수에 대한 이혼 요구}
 다. {??부하에 대한 상관의 외출 허락/
 *상관에 의한 부하에 대한 외출 허락}

(37)에서 ‘에 대한’ 형태의 논항을 삭제하면 다음 (38)과 같은 적격한 술어명사구가 생성된다.

- (38) 가. {철수의 문법 설명/철수에 의한 문법 설명}
 나. {영희의 이혼 요구/영희에 의한 이혼 요구}
 다. {상관의 외출 허락/상관에 의한 외출 허락}

그러나 (37)의 ‘설명’, ‘요구’, ‘허락’과는 달리 ‘보고’, ‘허가’, ‘교육’의 경우에는 다음 (39)에서와 같이 술어명사구 내에 술어명사의 모든 논항이 실현될 수 있다.

- (39) 가. 주주에 대한 사장의 업무 보고
 나.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국 허가
 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절 교육

‘간주’, ‘가장’의 경우에는 다음 (40)~(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어떤 논항도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될 수 없다.

- (40) 가. *철수의 그 사업의 {성공 간주/성공으로의 간주}
 나. *그 사업의 {성공 간주/성공으로의 간주}
 다. *철수의 {성공 간주/성공으로의 간주}
 라. *{성공 간주/성공으로의 간주}
 마. *철수의 간주

- (41) 가. *철수의 자신의 {불량배 가장/불량배로의 가장}
 나. *자신의 {불량배 가장/불량배로의 가장}
 다. *철수의 {불량배 가장/불량배로의 가장}
 라. *{불량배 가장/불량배로의 가장}
 마. *철수의 가장

술어명사 논항의 통사적 실현 양상은 다음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술어명사의 조어상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 (42) 가. 부모의 예절 교육
 나. *부모의 예절 가르침

(42가)에서 한자어 어원의 술어명사인 ‘교육’은 술어명사구를 구성하나 동일한 뜻을 갖는 순수 한국어 술어명사인 ‘가르침’은 (42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어명사구를 구성하지 못한다.¹²⁾

12) 그러나 ‘교육’과 ‘가르침’은 모두 다음 (1)과 같은 술어명사구는 구성할 수 있다.

(1) 가. 부모의 예절에 대한 교육
 나. 부모의 예절에 대한 가르침

또한 다음 (43가)에서 한자어 ‘출발’은 술어명사구를 구성하나 이에 대응하는 순수 한국어 ‘떠남’은 (43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어명사구를 구성하지 못한다.

- (43) 가. 철수의 {서울 출발/서울로부터의 출발/서울로의 출발}
 나. *철수의 {서울 떠남/서울로부터의 떠남/서울로의 떠남}

이상의 관찰을 통해 우리는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제약은 매우 어휘 의존적이며 따라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술어명사의 어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한국어 술어명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술어명사가 취하는 술어명사구의 가능한 통사적 실현 양상을 분석·기술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¹³⁾

4.2. 논항의 형태에 따른 위치 이동 제약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제약은 상당 부분 논항의 형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술어명사 논항의 이동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논항에 부여된 기능이 아니라 논항의 형태다. 술어명사의 논항은 술어명사에 가장 인접한 논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다음 (44)~(45)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44) 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파병 약속
 나. {미국에 대한 한국의 파병 약속/*한국의 파병 미국에 대한 약속}

- (45) 가. 정부의 난민들에 대한 입국 허가
 나.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입국 허가/*정부의 입국 난민들에 대한 허가¹⁴⁾}

(44가)와 (44나), (45가)와 (45나)를 비교해 보면 논항 ‘한국의’와 ‘미국에 대한’, ‘정부의’와 ‘난민들에 대한’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논항, 즉 목적어 기능을 부여받은 ‘영’ 형태의 논항인 ‘파병’과 ‘입국’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46) 가. 김 교수의 문법 연구
 나. *문법 김 교수의 연구

13) 이와 같은 작업이 이미 21세기 세종 전자사전 개발 계획의 체인 전자사전 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홍재성 외(2000, 2001, 2002) 참고.

14) ‘입국’이 ‘난민들에’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사용되었다면 이 구성은 적격할 것이 된다. 뒤에 나오는 (48나)나 (50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47) 가. 김 교수의 문법에 대한 연구
나. 문법에 대한 김 교수의 연구

(46)과 (47)을 비교해 보면 논항의 형태가 그 위치 이동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이 목적어 기능을 부여받은 ‘영’ 형태 논항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47)은 ‘에 대한’ 형태의 논항이 자유롭게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48) 가. 현대의 미국 진출
나. *미국 현대의 진출

- (49) 가. 현대의 미국으로의 진출
나. 미국으로의 현대의 진출

- (50) 가. 7사단의 평양 입성
나. *평양 7사단의 입성

- (51) 가. 7사단의 평양으로의 입성
나. 평양으로의 7사단의 입성

(48)과 (50)에서 ‘미국’과 ‘평양’은 목적어 기능을 부여받은 논항은 아니지만 ‘영’ 형태이므로 그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49)의 ‘현대의’와 ‘미국으로의’, (51)의 ‘7사단의’와 ‘평양으로의’는 ‘영’ 형태가 아니므로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다음의 예들은 논항의 형태와 그 위치 이동 가능성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 (52) 가. 영주의 주인과의 값 흥정
나. *주인과의 영주의 값 흥정

- (53) 가. 철수의 영희와의 자리 교체
나. *영희와의 철수의 자리 교체

- (54) 가. 한국의 미국과의 북핵 문제 논의
나. *미국과의 한국의 북핵 문제 논의

- (55) 가. 철수의 영희와의 문법 토론
나. *영희와의 철수의 문법 토론

(52가)~(52나), (53가)~(53나), (54가)~(54나), (55가)~(55나)를 비교해 보면 ‘와의/과의’ 형태 논항의 위치 이동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술어명사 논항의 이동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논항에 부여되는 기능이 아니라 그 형태임을 확인했다.

5. 술어명사 논항의 생략

우리는 지금부터 술어명사 논항의 생략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선, 논항 생략 현상과 관련된 제약 조건을 찾아볼 것이며 이 현상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술어명사를 술어명사의 용법만을 갖는 것과 술어명사와 사태명사의 용법을 모두 갖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할 것이다.

술어명사구가 적격한 것이 되기 위해 술어명사의 모든 논항들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56)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56) 가. (한국의)¹⁵⁾ 자원 부족
 나. (미영 연합군의) 민간 시설 파괴
 다. (한국의) 베트남과의 교류
 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증유 제공

(56)은 ‘부족’, ‘파괴’, ‘교류’, ‘제공’이 구성하는 술어명사구에서 주어 기능을 하는 ‘의’ 형태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56라)는 술어명사 ‘제공’과 가장 인접한 논항인 ‘증유’를 제외한 다른 논항들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 (57)은 적격하지 않다.

- (57) 가. *한국의 (자원) 부족
 나. *미영 연합군의 (민간 시설) 파괴
 다. *한국의 (베트남과의) 교류
 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증유) 제공

(56)과 (57)이 적격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57)이 비적격한 이유는 술어명사 ‘부족’, ‘파괴’, ‘교류’, ‘제공’과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⁶⁾ 다음 (58) 역시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을 포함하여 다른 논항들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적격한 구성이 된다.

15) 우리는 술어명사의 생략될 수 있는 논항을 ()로 표시한다.

16) 우리는 이병규(2001, pp. 53-54)의 ‘최소한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논항이 실현되어야만 술어명사구가 적격한 구성이 된다’는 분석에 동의한다.

- (58) 가. *(한국의) (자원) 부족
 나. *(미영 연합군의) (민간 시설) 파괴
 다. *(한국의) (베트남과의) 교류
 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술어명사의 논항 중에서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은 결코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술어명사구가 적격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다. 다음 (59)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59) 가. 국회의 (파병) 결정
 나. 김 이사의 (회사 상황) 설명
 다. 작전참모의 (전황) 보고
 라. 언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59)는 (56)과 달리,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명사구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술어명사 논항의 생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술어명사로 총칭되어 왔던 명사들의 속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59)에 대해 다음 (60)이 대응한다.

- (60) 가. 국회의 파병을 결정했다.
 나. 김 이사가 회사 상황을 설명했다.
 다. 작전참모가 전황을 보고했다.
 라. 언론이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60)은 (59)에 대응하는 동사구문이다. (60)의 서술어와 마찬가지로 (59)의 명사들도 논항을 동반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술어명사의 일반적 특성이다.

그런데 (59)의 명사들은 논항을 동반하지 않고 다음 (61)과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 (61) 가. {그런 결정/그런 설명/그런 보고/그런 비판}
 나. {온갖 결정/온갖 설명/온갖 보고/온갖 비판}
 다. {결정들/설명들/보고들/비판들}
 라. {결정마다/설명마다/보고마다/비판마다}17)

17) 이 테스트들은 이병규(2001, pp. 72-78)에서 빌려왔다.

(61)의 명사들은 (59)에서와는 달리 술어명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논항을 동반하지 않은 채, 지시관형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복수 표지 ‘들’, 보조사 ‘마다’와 결합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은 이병규(2001, pp. 54-55, pp. 72-81)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며 우리는 그의 분석과 궤를 같이 하여 (56)과 (59)의 명사를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56)의 명사가 술어명사의 용법만을 갖는 반면, (59)의 명사는 술어명사의 용법뿐만 아니라 다른 용법도 갖는다. 이와 같은 분석에 입각하여 (59) 유형의 논항 생략은 가능하나 (57)~(58) 유형의 논항 생략이 불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다.

술어명사 논항의 다양한 생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술어명사로 총칭되어 왔던 명사들의 통사·의미적 행태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홍재성(1993)은 (56)과 (59)의 명사들을 구분하지 않고 술어명사라고 불렀으며 김창섭(2001, 2002)은 기능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반 서술어의 논항으로도 쓰일 수 있는 명사, 즉 (56)과 (59) 유형의 명사들을 통칭하여 사태명사라고 불렀다.¹⁸⁾ 이병규(2001, pp. 72-81)는 의미역 할당의 유무에 따라 술어명사와 사태명사의 용법을 구분하면서 (56)의 명사들은 술어명사의 용법만을 갖는 것으로, (59)의 명사들은 술어명사와 사태명사의 용법을 모두 갖는 명사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본고에서 이병규(2001)의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즉, (59)의 ‘결정’, ‘설명’, ‘보고’, ‘비판’은 그와 가장 인접한 논항인 ‘파병’, ‘회사 상황’, ‘전황’, ‘정부 정책에 대한’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술어명사의 용법이 아니라 비한정적이며 일반적인 사태를 지시하는 사태명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 ‘김 이사의’, ‘작전참모의’, ‘언론의’는 술어명사 ‘결정’, ‘설명’, ‘보고’, ‘분노’의 논항이 아니라 부가어 혹은 수식어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59)는 ‘파병’, ‘회사 상황’, ‘전황’, ‘정부 정책에 대한’이 실현되지 않아도 적격한 구성이 된다. 한편, (56)의 ‘부족’, ‘파괴’, ‘교류’, ‘제공’은 술어명사의 용법만으로 쓰이기 때문에 (57)~(5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명사구는 비적격한 것이 된다.

우리는 전술한 논의를 통하여 술어명사는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어야만 진정한 술어명사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일견 술어명사구처럼 보이나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지 않은 명사구는 사태명사구로 분석하였다.

18) 보다 구체적으로 김창섭(2001, 2002)은 형태론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경동사(혹은 기능동사)와 함께 복합적인 서술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다른 서술어의 논항으로도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사태명사라고 불렀다.

6.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술어명사 논항의 다양한 통사적 실현 양상을 검토·분석해 보았다.

우리는 우선 동사와 술어명사의 논항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통사적 대응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대응 관계가 존재하나 동사의 모든 논항이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반대로 술어명사의 모든 논항이 동사의 논항으로 실현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술어명사 논항의 대표적 형태인 ‘의’, ‘영’, ‘에 대한’, ‘에 의한’을 술어명사가 논항에 부여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았다. ‘의’나 ‘영’ 형태는 논항이 술어명사구 내에 실현될 때 부여받는 기능과 관계없이 쓰일 수 있는 형태다. ‘의’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부여받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 사이에는 실현 양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논항 뒤에 단순히 ‘의’가 붙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격조사와 결합한 논항 뒤에 다시 ‘의’가 붙는다. 목적어 기능을 부여받을 때는 대부분 ‘의’ 없는 형태가 더 자연스럽다. 우리는 음성학적 요인과 논항의 결속도 차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았다. ‘에 대한’ 연쇄를 술어명사 논항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를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는 ‘에 대한’ 연쇄가 통사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에 대한’ 연쇄는 경우에 따라 술어명사 논항으로서의 지위와 술어명사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우리는 ‘에 의한’ 형태가 술어명사구 내에서 ‘의’ 형태가 연속해서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어 논항의 형태인 ‘의’를 대체할 때 흔히 사용됨을 지적했다. ‘에 의한’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에 대한’과 마찬가지로 ‘에 의한’ 연쇄를 잠정적으로 명사구 내에 실현되는 술어명사의 논항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다음으로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제약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술어명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른 실현 제약과 술어명사 논항의 형태에 따른 위치 이동 제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선 술어명사 논항의 실현 제약은 매우 어휘 의존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술어명사의 이와 같은 어휘적 특성을 어휘부에 낱말이 표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 술어명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술어명사가 취하는 명사구의 통사적 실현 양상을 분석·기술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술어명사 논항의 이동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논항에 부여되는 기능이 아니라 그 형태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술어명사 논항의 생략 현상도 우리의 분석 대상이었는데 우리는 술어명사의 모든 논항들이 명사구 내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만 실현되면 그 술어명사구는 적격한 구성을 이룰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한편, 술어명사와 가장 인접한 논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그 구성이 적격함 것으로 보이는 명사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를 사태명사구로 분석했다. 즉, 우리는 술어명사 논항의 다양한 생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술어명사로 총칭되어 왔던 명사들을 술어명사의 용법만을 갖는 명사와 술어명사와 사태명사의 용법을 모두 갖는 명사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참 고 문 헌

- 김창섭. (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37-1, 63-85.
 김창섭. (2002). 경동사 '하다'의 두 가지 보어: '하다'-어근구와 '하다'-명사구. 관악어문연구 27, 149-186.
 이병규. (2001). 국어 술어명사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3, 409-476.
 홍재성. (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4, 36-55.
 홍재성. (1993). 약속의 문법: 술어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 동방학지 81, 75-96.
 홍재성. (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어휘적 접근. 인문논총 41, 135-173.
 홍재성 외. (2000).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홍재성 외. (2001).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홍재성 외. (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Ahn, Hee-Don. (1991).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Kim, J.-R. (1993). *A lexical-functional grammar account of light verbs*. Seoul: Thaeaksa.
 Park, Kabyong. (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박 동 호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전자우편 : pakdh@khu.ac.kr

접수일자 : 2004. 6. 1

수정본 접수 : 2004. 7. 15

게재결정 : 2004. 7. 27